



남원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남원에촌 전통한옥체험시설-남원에촌 by KENSINGTON이 지난 15일 이환주 남원시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성민 이랜드파크 대표이사, 안숙선 명창 및 최기영 대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

남원에촌 한옥체험관 개관

구들난방·전통흡벽·옷칠마감 등 순수 고건축 방식 7동 총 24실 갖춰

남원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남원에촌 전통한옥 체험시설-남원에촌 by KENSINGTON』이 지난 15일 이환주 남원시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성민 이랜드파크 대표이사, 안숙선 명창 및 최기영 대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

남원시는 전북도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 선정되어, 광한루원 인근 1만7,400㎡의 부지에 구도심권 활성화 및 관광권역 확대를 목적으로 『남원에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까지 1지구 전통한옥숙박 체험단지과 2지구 전통문화 체험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관한 전통한옥숙박 체험단지(남원에촌 1지구)는 최기영 대목장, 이근복 번와장 및 박강용 옷칠장 등 최고의 명장들이 혼을 담아 주요 목부재에 육송, 구들난방, 전통흡벽, 전

통기와 잇기, 옷칠마감 등 순수 고(古)건축 방식을 재현하여 건립했다. 시설은 숙박동, 기업업무와 세미나 등을 위한 다목적관, 전통정자, 관리동 등 15동의 전통한옥으로 숙박동은 모두 7동이며 총24실(2인실 5실, 4인실 15실, 6인실 2실, VIP 2실)을 갖췄다.

또한 『남원에촌』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시 기대 된다. 남원시는 “전년의 전통에 편안함을 더하겠다”며 전문 위탁운영을 결정했고 이랜드그룹의 호텔레저 사업부(㈜이랜드파크)가 운영사로 선정됨에 따라, 브랜드 『KENSINGTON』을 도입하여 『남원에촌 by KENSINGTON』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랜드파크는 호텔(6개소), 리조트(10개소), 콘도(3개소) 및 베이스타운 등 업계 최다 사업장(총23개, 5,020실)을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네

트워크를 바탕으로 숙박객에게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며, “한옥의 전통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최고급 호텔식 서비스를 더하여, 방 안에서 편히 즐기는 아침식사 및 이부자리 세탁 서비스, 주중에는 부채 만들기, 꽃고무신 만들기, 주판에는 판소리, 서당체험, 도예체험 등 전통문화와 정서를 다양하게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도시 남원에 전통한옥체험 시설 『남원에촌』이 개관함으로써 광한루와 지리산 등 지역 명소를 찾아온 내방객들에게 고즈넉한 여유와 힐링의 하룻밤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예향의 도시이자 천년의 역사를 지닌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아기가 담긴 『남원』의 문화관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이 과학영농을 통한 미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순창군, 과학영농으로 미래농업 선도

히카마·미니양배추 등 실증재배 성공적 추진

순창군이 과학영농을 통한 미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최근 순창읍 옥천로 150-24 일원에 위치한 과학영농실증포에서 히카마, 미니양배추, 커피나무, 모링가 등 실증재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영농실증포에는 종합경정실 66㎡, 조지배양실 40㎡, 유리온실, BMW 생산플랜트 등을 갖추고 있으며 IC, 비색계, pH측정기, 무균작업대, 고압멸균기, 살생분분식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히카마는 맥시코감자로 잘 알려진 품과 식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식물이다. 특히 배춧잎 아삭아삭한 식

감과 단맛도 난다.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당도 등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인도가 원산지인 모링가 나무도 5대영양소와 필수아미노산, 오메가, 칼슘, 비타민 철분 등이 풍부하며 당도에 좋은 천연인슐린아르코르빈산이 풍부하며 2007년도에는 미국에서 올해의식물로 지정된 바 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순창지역에서도 재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경제성도 높아 실증재배가 끝나면 농가에도 보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대비해 인디언작두콩, 코끼리 마늘 등 지역 적응성을 시험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학영농 실증포에서는

BM활성수 120톤을 농가에 보급해 고추, 부추, 쌈채소, 블루베리 등의 생육을 도와 사용농가의 재배능률 향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또 딸기 번식 방법을 실증하여 농가 기술보급을 진행하고 있고, 고설재배 휴경기 작부체계로 토마토 2월기 재배 및 상추·열무 후작 등 기술보급을 진행해 과학영농을 선도하고 있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순창군에서는 FTA와 기후변화라는 농업의 환경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적 영농을 통한 다양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과학영농실증포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작물들을 발굴해 보급하는 등 과학영농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아빠하고 나하고 사진공모전' 박정열 대상 수상... 저출산 극복·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저출산 극복과 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한 '제1회 아빠하고 나하고 사진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전은 군민들에게 아이가 부모·가정·사회에 주는 행복감을 널리 알리고 아빠의 육아참여를 통한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주관해 개최했다.

지역 내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전은 ▲행복한 우리가족 ▲아빠와의 감동적인 순간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모습 등 3개 부문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지니 인터넷을 통해 접수수 받았으며 총 79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결과 고창읍 박정열씨가 아이를 재우려다 먼저 잠든 아빠를 바라보는 아기의 놀란 모습을 담은 '이 사람이 우리 아빠?'로 대

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우수상에 '행아 내가 더 크지롱'(손승재), '행운을 찾아봐'(조기정), '아빠는 김밥의 달인'(정성남) 등 총 9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점 30만원, 우수상 3점 각 15만원, 장려상 5점 각 5만원의 시상금이, 기타 공모 참여자들에게는 참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권이 수여됐다.

수상작품은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연중 전시되고 향후 영유아 관련 각종 행사와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고창군은 합계출산율이(가임여성의 출산 자녀수) 1.44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65일 24시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출산·육아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하는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특강 등을 통해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전 청년에너지 충전소 순창 문화탐방

대전지역 대학생 동호회 연합모임인 '대전 청년에너지 충전소' 회원 200여 명이 지난 14일에서 15일까지 순창을 알기 위한 문화탐방에 나섰다.

이번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문화 탐방은 최근 코레일 대전 충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충청권 관광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행사로 의미가 크다.

특히 대전 청년에너지 충전소는 대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동호회원들의 연합체로 봉사활동과 건전 선거를 위한 공익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이 2,000여명이 넘는 단체로 군은 대전지역에 순창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있다.

이번문화탐방은 순창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강천산과 고추장민속마을 방문을 통한 정류체험 알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회원들은 강천산을 방문해 각자 주어진 미션에 따라 사진을 찍고 또 정류체험관에서 순창전통장류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황군수는 “순창은 호남권의 배꼽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할 정도로 호남의 중심지역이다”면서 “특히 삼진강 줄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간인 동계장군목과 풍산 향가 유원지는 기업과 석과 주위의 풍경이 조화를 이루며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곳이다”고 설명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가 지난 15일 흥덕중학교 강당에서 흥덕중과 성내중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주최,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주관으로 12개 기관 및 봉사단체가 연계해 개최됐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탐소DIY,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전북 지부 고창 '꽃이랑 휴이랑', 엔젤스킨(천연화장품 공장)을 비롯해 고창청소년문화센터,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창경찰서, 고창교육지원청

Wee센터, 고창군정신건강증진센터,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고창보건소,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참여해 학생들이 다양한 부스에서 체험과 봉사활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는 유관기관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소년자원봉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특이사항

남원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실시

남원시는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서, 남원시는 지난 2011년부터 연속으로 추진하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750여 가구, 올해도 6월까지 93가구의 슬레이트를 처리하였다.

지원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이며, 사전 철거된 슬레이트 및 축사 등은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사업은 가구 당 발생하는 슬레이트 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자순으로 사업이 진행되므로 철거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일본뇌염 주의 당부

임실군은 최근 전국적인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매개모기(작은 빨간 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감염되는 질환으로 고열, 두통 및 의식장애를 비롯한 경련,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망률이 높고, 회복 후에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다.

또한,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 및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일본뇌염 환자의 평균 연령이 54.6세로 나타나 주로 고령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매개체인 '작은 빨간 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알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예방법은 방충망 및 모기장 사용, 야간 야외 활동 자제,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옷 착용 및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 게도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5일 군 관제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지원단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주변과 터미널 등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을 통해 업소들이 술, 담배 등을 판매할 때 주민등록증을 꼭 확인하고 청소년에게는 판매하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했다.

또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과 올바른 청소년문화를 홍보하고 올해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감진 제도 홍보활동도 펼쳤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내척동 경계결정토지 통보

남원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장낙원)를 개최해 내척동 83-1번지 일원 85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계결정토지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토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가 확정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축타과 함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다.

이의신청 건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재결정하게 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